

[종합·해설]

盧대통령 “신당 반대, 우리당 지킬 것”

통합신당파와 결별 최후 통첩

“지역당 만들자는 것, 나갈 사람 나가라” 암박
신당파 “대통령이 탈당해야”… 여권 분열 가속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열린우리당을 지키겠다”며 당·청간 대결 구도를 더욱 확실히 할 때 따라 여권내 갈등의 골이 회복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다.

특히, 노 대통령이 여당내 신당창당 움직임에 대해 “지역당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점에 대해 통합신당파 중심으로 반발이 오히려 확산되면서 분당 등 정계개편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크게 탈당 불가와 신당 반대로 요약된다. 즉 신당 논의를 통해 열린우리당이 해체될 가능성이 있다면 당적을 유지, 당을 지켜내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노 대통령 발언의 배경은 사실상 지역당으로 되돌아가는 통합신당 창당을 위해 나갈 사람은 나가는 메시지이며 통합신당파에 대한 암박이라는 것이다. 특히 지역당 회귀라는 통합신당에 대한 단호한 성격 규정은 설령 정권재창출에 실패하더라도 나라고 다시 동서로 갈라져서는 안된다는 결

의마저 느껴지게 한다.

하지만 이같은 노 대통령의 의지는 여당 의원들의 ‘정권재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일반적 인식과 전혀 다른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지난 2002년의 ‘정권재창출이 최고의 개혁이 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는 친노 그룹들이 열린우리당에 남고 나머지가 당을 떠나는 얘기가 많았다.”며 “이제는 반대로 친노 그룹이 대통령을 따라 탈당해 신당을 만드는 방안도 모색해야 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독자 노선 추구로 여권이 사분오열돼 대선에서 한나라당에 패배할 경우 “분열로 인해 정권을 넘겨줬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부담도 노 대통령의 행보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친노 그룹에 속하는 여당 모 의원은 “지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 관련 발언 등 정국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짜증 난다…이제 전면전 불가피”

與의원들盧대통령 발언 반발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통합신당을 ‘지역당’으로 규정한 발언이 알려지자 열린우리당은 별집을 쑤셔놓은 듯 했다.

우리당 의원들은 노 대통령이 이날 몇몇 청와대 참모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당내에 광범위한 공감대를 얻고 있는 통합신당 추진 움직임을 “지역당을 만들자는 것”으로 평가절하하면서 “열린우리당을 지키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통합신당과 의원들에게 ‘신당은 지역당에 불과하다’고 그토록 지역당을 만들고 싶으면 너희가 나가서 해보리’는 메시지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우리당 의원들은 “노 대통령이 어떻게든 활로를 찾아보려는 여당에 친물을 끼얹고 내분을 부추기고 있다”, “짜증나서 더이

상 못 들어주겠다”, “이제 전면전이 불가피하다”, “대통령의 진의가 뭔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등 격한 반응을 보였다.

당은 공식적으로는 정중한 반응을 보였지만 노 대통령의 “신당은 지역당” 주장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박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우리당은 새로운 시대정신을 구현할 신정치세력을 결집하려는 것으로 결코 지역주의로 회귀하기 위한 지역당을 만들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여당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통합신당과 의원들은 노 대통령의 발언이 당에 대한 노골적인 편파와 무시에서 나온 것일 뿐만 아니라 신당주진의 명분과 동력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고 거친 표면을 써가며 정면으로 반발했다.

이에 대해 친노파 의원들은 “당에 대한 애정표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업원 과력” 등 긍정적인 해석이 우세한 가운데 일부는 노 대통령이 잇따라 자극적인 발언을 하는 데 따른 여론 악화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국민 10명 중 7명
“대통령 중도사퇴 반대”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내 사퇴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대통령의 중도 사퇴를 반대하고 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RI)가 여론조사기관인 ‘디오피니언’에 의뢰, 지난달 28일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신뢰수준 95%, 오차범위 ±3.7%포인트)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74%가 “국정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노 대통령의 중도사퇴에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나타난 가운데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도 지난 11월 14일 11.0%에 비해 3.0% 포인트 오른 14.0%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전남도, F1 대회 성공 위해
경기장 사후 활용 방안 찾아야

F1 발전방향 국제세미나

전남도가 J프로젝트(서남해안 관광 저도시개발) 핵심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F1(포뮬러 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려면 경주장 사후 활용 방안과 재원조달 문제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오후 전남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열린 ‘F1 발전방향 국제세미나’에서 김예기 KDI 경제정보센터 전문위원은 ‘F1 대회와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주제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남도가 추진중인 F1 대회와 관련, 일단 대회가 개최된 이후 경제·사회적 효과를 얼마나 지속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일고 있다. 특히 F1 대회를 관장하는 FOM(Formula One Management)에 지금해야 할 개회권료와 경주장 공사비 등 수천억원에 달하는 재원조달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용인과 태백 등 10여 개에 이르는 자동차경주장이 국내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데, 다른 도시에서도 국

제자동차경주대회를 개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F1경기 개최 및 경기장 사후활용 방안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 연구원은 또 F1 개최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 긍정적인 요소만 강조되고 있을 뿐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초대형 스포츠이벤트를 유치하는 지방 자치단체는 시설 건설이나 보수, 도로 건설 등을 위해 추가비용을 지출해야 하고, 이는 고스란히 지방정부의 부채로 남는다는 것이다. 또 스포츠이벤트에 따른 기회비용은 도외시된 채 경제적 효과만 지나치게 과대평가되는가 하면 부동산투기나 물가상승, 환경파괴, 주민생활 스트레스 등 스포츠이벤트 개최에 따른 부정적인 비용이 제대로 계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F1 대회 개최 후 경주장 및 부대시설 활용방안을 마련해 J프로젝트나 ‘서남권 종합발전 구상’ 등과 연계발전시키고 상품이나 이벤트 개발, 시장 형성 등에도 주력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무안기업도시 개발계획 승인신청

청계면·현경면·망운면 일대 1단계 부지 526만평

무안기업도시 1단계 개발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안)이 건설교통부에 접수됨에 따라 무안은 산업교역형 기업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무안군은 무안기업도시개발(주)은 지난달 30일 무안읍과 청계면, 현경면, 망운면 일대 526만 평을 기업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안)’ 승인 신청서류를 전교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개발계획(안)이 접수된 것은 1단계 부지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1조 3천억원 가운데 10%인 1천 300억원을 확보, 개발계획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게 된데 따른 것으로, 지난 2005년 7월 무안이 산업교역형 기업도시로 선정된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개발계획(안)에 따르면 무안기업도시는 ▲첨단기술 및 항공물류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국제교역도시 그리고 ▲통합의학·휴양단지와 호반생태공원 등을 갖춘 생태환경도시로 조성되며, 오는 2025년까지 5만 5천 명이 거주하게 된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무안=이원희기자 whlee@kwangju.co.kr

광주 → 방콕 여행
방콕·파타야·캄보디아

₩ 670,000 ~
GOLF ₩ 850,000 ~

광주 → 방콕 여행
방콕·마카오·싱ап

₩ 650,000 ~

광주 → 캄보디아 여행
캄보디아·방콕·싱가포르

₩ 820,000 ~

광주관광청, 2006년 12월 1일 금요일
광주전남을 유망여행지 판다
전세기 사무실 ☎ 010-1225-6070